

# “올 시즌 내 인생 최고의 해”

**우승반지 이어 결혼반지까지 KIA 나지완의 행복한 2017**

**개인 최다 홈런·V11까지 ‘모범 FA’**  
**“끝내기 V10보다 이번 우승 더 기뻐”**  
**내달 2일 기상 캐스터 양미희씨와 화촉**  
**챔피언서 웨딩포토 “야구보다 힘드네”**

KIA 타이거즈 나지완(32)이 9일 유니폼을 켜고 입고 챔피언스필드 그라운드에서 올랐다. 익숙한 장소에 오른 낯선 표정의 나지완 옆에는 ‘V11’의 여정을 함께한 동료가 아닌 인생 동반자가 있었다.

나지완이 유니폼까지 챙겨 입고 경기장을 찾은 것은 미뤄두었던 웨딩포토를 찍기 위해서다.

나지완은 오는 12월 2일 오후 12시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8살 연하 양미희 씨와 결혼식을 올린다. ‘예비 신부’는 광주 KBC 기상 캐스터로 활약하고 있는 미모의 재원이다.

양씨의 배려 속에 우승이라는 중대한 목표에 집중했던 나지완은 ‘우승 추억’이 되어 기분 좋게 카메라 앞에 설 수 있었다.

계속되는 포즈 요청에 “훈련을 하는 것보다 힘들다. 배도 고프다”고 고개를 저으면서도 나지완은 사진을 찍는 내내 활짝 미소를 지으며 ‘사랑꾼’이 되었다.

나지완은 “중요한 시즌이기도 했고, 와이프가 배려를 해줘서 시즌 무사히 끝내고 휴가분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매일 긴장감 속에 뛰던 그라운드에서 좋은 사람과 서니 기분이 새롭고 좋다. 사진 찍는 일이 쉽지는 않다”고 웃었다.

올 시즌은 나지완 인생 최고의 해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꿈인 FA에 성공한 나지완은 2009년에 이어 다시 한번 우승의 현장에 섰다. 여기에 든든한 동반자와 백년가약을 맺게 되면서 부와 명예 그리고 사랑까지 모두 얻은 2017시즌이 됐다.

나지완은 올 시즌 137경기에서 나와 0.301의 타율을 기록하며 ‘3할 군단’의 일원이 됐다. 프로 데뷔 후 가장 많은 27개의 홈런을 날리며, 94타점도 올리는 등 ‘모범 FA’로 정규시즌 우승에 힘을 보탤다.

2009년 영광 재현에도 성공했다. 2009년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끝내기 홈런을 터트리면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던 나지완은 이번 가을에는 3차전에서 큰일을 했다. 4-3으로 쫓기던 9회초 대타로 나온 나지완은 2009년 처럼 잠실 외야 좌측으로 공을 날리면서 승리에 쾌거를 보였다.

나지완은 “올 시즌은 정말 최고의 해였다. 2009년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릴 때는 개인적으로는 2009년도에 우승했을 때보다 올 시즌 우승이 더 기뻐요. 이번에는 팀의 중추 선수로 동료들과 우승을 만들어 내서 좋다”며 “팀에서의 역할도 그렇고 남편이라는 자라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득직한 선수이자 남편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결혼을 앞둔 KIA 타이거즈의 나지완이 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웨딩포토를 찍었다. ‘예비신부’ 양미희 씨가 방망이를 잡고 포즈를 취하자 나지완이 포수로 변신해 호흡을 맞췄다.



## 2년 후 만나요

**KIA 김호형 등 4명 경찰야구단 입단**

KIA 타이거즈의 김호형·이진영(이상 외야수), 고장혁(내야수) 김명찬(투수)이 내년 시즌 경찰야구단에서 뛰는다.

대한민국의무경찰은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체육특기 의무경찰에 합격한 2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KIA에서는 한국시리즈 엔트리에 합류해 우승의 기쁨을 누리 김호형과 고장혁을 비롯한 4명의 선수가 합격했다.

NC 다이노스의 ‘안방마님’ 김태군도 이번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합격자는 경찰야구단 유승안 감독의 지휘 아래 2년 동안 퓨처스리그에서 뛰며, 군 복무를 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도시철도공사 김성연 亞계임 유도 1차선발전 우승

여자 유도의 간판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사진)이 2018 아시안게임 1차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성연은 지난 7일 충남 보령종합체육관에서 2017 회장기 전국유도대회를 겸해 열린 대회 여자 일반부 70kg급에 출전해 정혜진(안산시청)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8월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 입은 무릎인데 부상 이후 얻어낸 값진 우승이다.

김성연은 지난 전국체전에서 주춧기인 업어치기를 시도도 못 하고 라이벌 유지영(경남도청)에게 패하는 등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지만, 예선전을 한판승으로 마무리하며 가볍게 준결승에 오른 뒤 맞수인 유지영과 연장점전 끝에 업어치기되지기 절반승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허벅다리걸기되지기로 절반을 얻어 정상을 차지하는 등 선제공격보다는 상대의 공격을 되치기하는 전략을 펼치며 노련하게 경기를 운영했다.

김성연의 우승은 종전 3차례의 선발전에서 2차례로 줄인 대표선발 방식에서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48kg급에 출전한 이혜경(광주도시철도공사)도 3위에 입상하여 태극마크를 유지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러시아월드컵행 티켓 9장 잡아라

### 15일까지 23번의 피 말리는 승부

**이탈리아·스웨덴 등 4장 걸린 유럽 PO 관심 집중**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 무대를 향한 각국의 마지막 경기가 오는 9일(현지시간) 막을 올린다.

32개국 출전하는 러시아월드컵에서 아직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티켓은 9장. 이 9장을 두고 15일까지 엿새간 전 세계 곳곳에서 23번의 피 말리는 승부가 펼쳐진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경기는 4장의 티켓이 걸린 유럽 지역 플레이오프다.

유럽에서는 조별 예선에서 1위를 한 벨기에,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세르비아, 스페인과 개최국 러시아가 이미 본선행을 예약했고 2 주위 상위 8팀이 플레이오프에 나선다.

조별 예선에서 스페인에 직행 티켓을 내준 이탈리아는 15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대기록을 이어가기 위해서 스페덴을 무찌러야 한다. 이탈리아와 스웨덴은 10일 스웨덴 솔나에서 1차전, 13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2차전을 치른다.

월드컵을 네 차례나 제패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5위 이탈리아는 9월 스페인에 0-3으로 패한 이후 마케도니아와 1-1로 비기고, 이스라엘-알바니아에서 1-0 신승을 거두는 등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 반면 스웨덴은 예선에서 프랑스에 승리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며 ‘오렌지군단’ 내달란트를 제치고 플레이오프에 올라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연합뉴스

스위스는 북아일랜드와 9일, 12일 맞붙는다. 스위스는 조별 예선에서 9전 전승을 거두다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경기에 패하며 직행 티켓을 날렸다. 북아일랜드는 32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의 꿈에 부풀어 있다.

이와 함께 크로아티아와 그리스는 9일과 12일, 덴마크와 아일랜드는 11일과 14일 몰라날 수 없는 끝장 승부를 벌인다.

0.5장의 소중한 티켓을 손에 쥔 아시아와 북중미, 오세아니아와 남미 국가들은 남은 0.5장을 획득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난다.

시리아를 물리치고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호주는 북중미의 온두라스와 10일과 15일에 만난다.

치열한 남미 예선에서 칠레를 골 득실로 누르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페루는 일찌감치 오세아니아 예선을 통과하고 기다린 뉴질랜드를 11일과 15일 상대한다.

아프리카는 조별 리그 마지막 경기를 이어간다.

5개 조 1위가 본선에 진출하는데 현재 이집트와 나이지리아가 남은 경기와 관계없이 조 1위를 확정 지은 상태다. 나머지 3개 조에서는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이 현재 선두를 달리며 각각 콩고 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의 추격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다시 뛰는 류현진 “내년 무기는 투심”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의 2017시즌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

어깨와 팔꿈치 부상을 털고 다시 마운드에 선 그에게는 “다시 아프면 어쩌나”, “예전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걱정하는 시선이 따라왔다.

류현진은 25차례 주춧 등판하며 6차례 퀄리티 스타트(QS·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로 호투하는가 하면, 8차례는 선발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강판당하는 등 기복을 보였다.

하지만 류현진은 이번 시즌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미디어 인터뷰에서 “팔에 문제가 없 시즌을 잘 치른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몸 상태는 100점 정도 될 만큼 전혀 문제없었다. 부상 없으면 된다 고 했는데 부상 없이 치렀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성적(126.2이닝 5승 9패 평균자책점 3.77)과 포스트시즌 엔트리 불발 등에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류현진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중요하다”며 털어냈다.

올해는 건강함을 확인한 시즌이었다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내년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류현진은 2013년을 앞두고 다저스와 6년에 총 3600만 달러에 계약했다. 내년은 계약 마지막 시즌이다. 내년 시즌을 마치면 류현진은 자유계약선수(FA)가 돼 새로운

평가를 받아야 한다.

류현진은 이미 내년 준비에 들어갔다.

그는 구종을 더욱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다. 류현진은 2017시즌에도 세 구종을 장착했다. 기존 구사하던 직구,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에 이어 제5의 구종 커터를 추가한 것이다. 2015·2016년 긴 재할로 생긴 공백을 채워줄 비장의 무기를 갈고 닦아 자신 있게 선보였다.

류현진은 “비디오 영상을 보면서 조금씩 던졌는데 생각보다 잘 들어갔다”며 스스로 학습법으로 새 구종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류현진은 내년 제6의 구종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미 장착 과정에 있다. 그는 월드시리즈 무대에 등판하지는 못했지만, 그 시간에 세 구종인 투심 패스트볼을 연습했다.

류현진은 “포스트시즌 때 팔뚝피칭을 하면서 투심 패스트볼을 많이 던졌다. 내년에는 투심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팔색조” 류현진으로 거듭나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려는 것이다.

그는 “나는 구속으로 승부하는 투수가 아니다. 공에 변화가 있으면(타자가 상대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능하면 메이저리그에서 오래 뛰고 싶다”고 한 류현진에게 내년은 건강함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진짜 시즌대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 광주·서울 생활체육 동호인 한 자리에

**오늘~내일 서울서 친선경기…시체육회간 첫 교류**

광주시체육회와 서울시체육회가 생활체육을 통해 첫 교류를 시작했다.

광주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는 10일부터 양일간 서울 일원에서 ‘광주·서울 생활체육 우호 교류대회’에 참가한다.

이번 교류대회에는 테니스, 농구, 볼링 등 3개 종목 100여명의 동호인이 출전해 서울동호인들과 친선경기를 펼칠 계획이다.

서울과의 스포츠 교류는 지난 2016년 광주시와 서울시 간 문화관광 교류에 대한 협약 체결을 근거로, 체육 분야도 동참해 양 도시 간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처음 개최되는 교류대회인 만큼 시체육회는 지

역 간 문화·관광·체육 교류로 친선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환해 지방체육 진흥에 기여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과의 스포츠 교류는 격년제로 참가와 개최를 번갈아 가며 이어갈 방침이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서울과의 교류는 수도권 스포츠교류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사업이다. 내년 광주에서 개최될 교류대회에는 더 다양한 종목 선정해 지역의 많은 체육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뜻 깊은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체육회는 도시 및 스포츠교류 사업으로 대구체육회와의 ‘달빛 스포츠교류’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